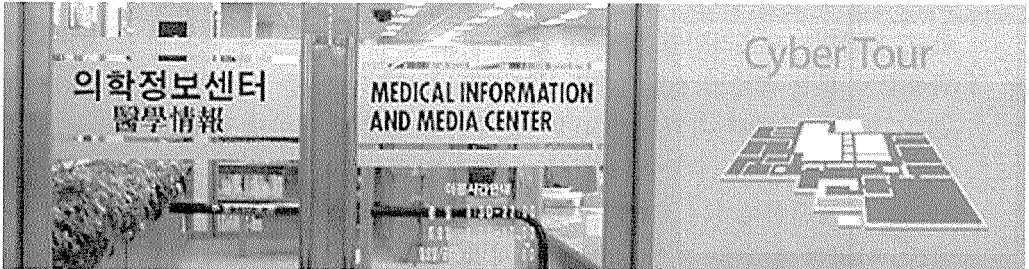


최상의 의학정보서비스를 구현하는 이용자 중심의 전문정보센터

삼성의학정보센터를 다녀와서



“도서관탐방”팀은 가급적 모든 관중의 도서관을 골고루 소개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월 이 지면이 신설된 이후 아직 가보지 못한 관중이 특수도서관이었다. 병영도서관 또는 점자도서관은 언론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지고 있어 우선 순위를 교도소도서관 또는 환자도서관에 두었는데 알고 보니 교도소도서관은 여러 여건상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관중 구분을 하는 경우 병원(의학)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병원 입원 환자들에게도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도서관의 목적을 조금이나마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이용자용 ‘맞춤형 교육’ 제공에서 환자용 ‘병실이동문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병원 모든 가족들의 정보·문화·복지의 종합센터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의학정보센터를 이번에 다녀왔다. ■ 편집자 주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삼성서울병원 별관 지하 3층에 자리잡은 삼성의학정보센터(정확한 기관명은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삼성서울병원의학정보센터이고, 영문명은 SamSung Medical Information & Media Center 임. 이하 ‘센터’라 함)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과 삼성서울병원의 진료, 교육, 연구의 발전을 돕기 위하여 1995년 2월 개관되었다.

현재 센터 직원은 총 20명. 1개 병원도서관의 직원수로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의료원 임직원 및 파견직 사원, 삼성그룹임직원,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은 말할 것도 없이 1995년 6월부터는 외부 의료인들(등록된 외부의료인은 1,351명)에게까지도 본 센터의 소장 자료 및 각종 의학 전문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제공하고 있다니 업무량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460평 규모로 1800여종의 의학관계 학술지, 30,000여권의 단행본 및 시청각자료와 MEDLINE 등 의학관련 웹 DB를 구비하고 있다.)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SLIMA, Samsung Librar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삼성의학정보센터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센터 소장여부에 관계없이 원문복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센터내에 없는 경우 타기관과의 상호대차제도를 이용하고, 국내에 없는 경우에도 영국국립도서관문헌제공센터



김남진 부센터장

(BLDSC), 미국립의학도서관(NLM),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1차적 원문정보제공서비스는 물론이고 의학 비디오 제작, 의학사진 및 슬라이드 제작과 같은 시청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제작된 자료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용, 특수 사례 보존용, 다양한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기적 이용자 교육 이외에 이용자 개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정보검색 방법을 안내하는 1대1 맞춤 교육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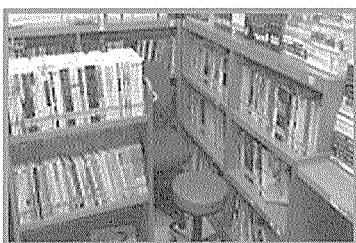
센터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현장을 진두지휘해 온 김남진 부센터장(사진)의 설명이다. 설립 10돌을 앞두고 있는 센터는 현재 최적의 종합의학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 2010’을 목표로 행동지침 ‘4C(Customer Satisfaction, Creativity, Challenge, Communication)’을 정해놓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소속 149개 기관간의 2003년 상호대차 통계를 보면 제공건수 항목에 있어서 의과대학속도서관 2곳을 제외하고 센터가 첫 번째다. 총 제공건수가 20만건인데 센터 제공이 2만건이다. 제공받은 건수도 1만4천건이니 얼마나 많은 정보이용이 센터를 통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단순하게 링크서비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전문DB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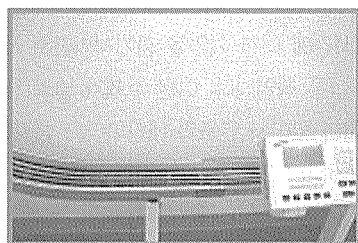
E-journal 활용법 등과 같이 사서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으며 원내 의료진이 작성한 국내외 논문을 학회나 출판사에 제출하기 전에 사서가 직접 학술지별 투고규정과 의학논문 작성법에 맞추어 수정해 주는 연구논문 작성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정말 더 이상의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센터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병원 환자들을 위한 병실이동문고도 운영되고 있었다. 문고 담당 4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4개조를 구성하여 매일같이 북트랙을 밀고 전 병동을 순회하고 있는데, 대출 반납 등의 운영은 병원 전체 차원의 자원봉사자실에서, 매월 30여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정리하는 일은 센터에서 하고 있다.

물론 현재 각 병원도서관이 운영하는 환자도서관(Patient Library)은 점자도서관 또는 병원내 의학도서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환경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한다. 하지만 입원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자료이용 및 정보접근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도서관인들의 사명임은 확실하다. 도서관탐방팀은 과거 수년간 최적의 종합의학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나라 의학 진료, 연구, 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온 센터에 대한 존경과 함께,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환자도서관 개관이라는 센터發 보도자료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센터를 나섰다.  [글: 박경아 기획·홍보팀장, 사진: 심효정]



〈병실이동문고 내 서가 및 북트랙〉



〈대출실에서 전 병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 료문반함(Auto Track)〉



〈각 중 정보검색 및 1대1 맞춤 교육이 진행되는 정보검색실〉